

발열 막으려 성능 억제? 또...스마트폰 강제 성능 저하 논란

삼성 지난달 출시 '갤럭시 S22' 게임 켜면 앱 등 다른 기능 장애 애플 이어 이용자들 불만 폭주

스마트폰 업계가 다시 '강제 성능 저하' 논란에 휩싸였다.

삼성전자가 지난달 출시한 스마트폰 '갤럭시 S22' 시리즈가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GOS)' 실행을 의무화하면서 강제 성능을 저하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이용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17년 미국 애플사에서 터져나왔던 '배터리 게이트' 논란에 이어 다시 한번 스마트폰 '강제 성능 저하'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GOS는 고성능 연산이 필요한 게임 등 특정 앱을 이용할 때 해상도를 낮추는 등 성능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리는 '스로틀링'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스마트폰의 연산 부담을 줄여 발열을 낮추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 냉각 장치가 없는 스마트폰에는 필수적인 시스템이다.

이 서비스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S22 이전 스마트폰에도 탑재돼 있었다. 다만 고성능으로 게임을 즐기려는 이용자들을 위해 서비스를 비활성화할 수 있었던 기존과 달리 GOS 사용을 '강제'한다는 게 문제였다.

갤럭시 S22 시리즈는 최근 원 UI 4.0 업데이트로 GOS 탑재를 의무화했고, 유료 앱을 구매하더라도 서비스를 중지시킬 수 없도록 했다. '갤럭시 S22가 역대 최고 성능으로 출시됐다'고 광고하던 것과 달리, 실제로는 제 성능을 활용할 수 없게 만들어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불만이 터져나오는 이유다.

GOS가 발동되면 화면 해상도, 초당 프레임 수(FPS), CPU·GPU 클럭(CPU 속도 단위) 등이 제한된다. 게임이나 앱이 느려져 '버벅'거리거나 흐릿하게 보이고, 터치 반응이 늦는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지난 5일 벤치마크(전자기기 연산 성능 측정) 사이트 '각벤치'가 공개한 실험 결과에 따르면 GOS를 발동한 갤럭시 S22의 중앙처리장치(CPU) 성능이 53.9%(싱글 코어), 64.2%(멀티 코어) 수준으로 떨어진다.

각벤치는 벤치마크 중에는 최고 성능을 발휘하고, 실사용 중에는 GOS 활성화를 강제한 것이 '성능 조작'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각벤치는 GOS를 사용하는 갤럭시 S22, S21, S20, S10 등 모델을 벤치마크 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지난 2017년 애플이 오래된 아이폰의 성능을 강제로 제한한다는 '배터리 게이트'와 겹쳐 보인다는 시각도 있다. 당시 애플에게는 구형 아이폰 이용자가 신형 아이폰을 구입하게 유도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졌다. 애플 측은 배터리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아이폰의 성능을 제한했다고 시인했다.

이 사태로 애플은 세계 각국에서 쏟아진 소비자 집단 소송에 시달린 끝에 지난 2020년 미국 아이폰 이용자들에게 총 6억 1300만 달러(약 7524억 원) 수준의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삼성전자 측은 삼성멤버스에 게시한 공지문을 통해 GOS가 스마트폰 발열을 막아 이용자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GOS를 켜고 끌 수 있는 옵션 기능을 추가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했다. /유연재 기자 yjyou@

국립광주과학관 체험형 전시품 개발 박차

과학원리 담은 체험형 제품

전파체험관에 신규 8종 전시

국립광주과학관이 일상 속 과학원리를 담은 체험형 신규전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국립광주과학관은 올해 전파체험관 리뉴얼을 시작으로 다양한 신규전시품을 개발, 공개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전파체험관에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함께 개발한 신규전시품 8종을 전시해 전파의 특성을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체험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생활 속 불량전파를 게임과 접목한 '출동! 고스트버스터즈', 항공기에 사용되는 전파기기를 체험할 수 있는 '전파로 날다', 방송에서 활용되는 전파를 이해하고 가치가 되어보는 '전파 스튜디오' 등을 선보인다.

과학관 직원이 직접 연구·개발하는 자체전시품인 중력을 거스르는 모습의 대형 '텐세그리티'와 빛의 반사로 인한 착시현상을 체험하는 '무중력 거울'도 개발 중이다.

'미래를 향한 도전' 존에 최근 설치된 '토네이도'도 호남권 최대 규모의 인공 토네이도를 관찰할 수 있는 전시물로 웅장한 자연현상을 체험할 수 있어 관람객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국립광주과학관에 설치된 인공 토네이도 전시품 '토네이도'.

과학관 관계자는 "관람객들이 놀이처럼 전시를 즐기며 자연스럽게 과학원리를 배울 수 있는 전시품을 계속 선보이겠다"며 "앞으로도 국립광주과학관의 전시에 많은 관심 가져달라"고 전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달에 3t 로켓 잔해 '꽂' 60평 아파트 크기 충돌구

4일 밤 달 뒷면에 충돌

로켓 국적은 미스터리

인간이 쏘아 올린 로켓 잔해가 지난 4일 밤(이하 한국시간) 달에 충돌, 200㎡ 크기의 충돌구를 남겼다.

3t 무게의 로켓 잔해는 밤 9시 25분께 시속 9300km로 달의 뒷면에 있는 '헤르츠스프룽(Hertzsprung) 크레이터' 인근에 충돌했다.

로켓 잔해는 길이 12m, 지름 3m에 2~3분마다 공중제비를 도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구에서 직접 관측할 수 없는 달의 뒷면인데다 달 궤도를 도는 위성인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달정찰궤도선'(LRO)이나 인도의 찬드라얀2호 등도 관측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 있어 충돌 과정을 실시간으로 기록하지 못했다.

다만 미리 찍어놓은 위성 사진을 통해 충돌 이전

과 이후를 비교할 수는 있지만 우주에서 몇달이 걸릴 정도로 전망했다.

달에 충돌한 이 우주쓰레기를 누가 만든 것인지 아직 논란이 있다.

지난 1월 로켓 잔해의 달 충돌을 처음 예고한 미국 천문학자 빌 그레이는 2015년 2월 심우주기상 위성(DSCOVR)을 쏘아 올린 스페이스X의 팰컨 9 로켓을 지목했다가 나중에 중국의 장정(長征)-3C 로켓 잔해로 정정했다. 달의 시료를 채취해 지구로 가져오는 창어(嫦娥) 5호 발사에 앞서 2014년 10월 23일 시험적으로 이뤄진 '창어 5호-T1' 미션에 사용된 로켓 잔해라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는 "우리 측 모니터링으로는 관련 상단 로켓이 지구 대기로 들어와 완전히 불타 사라졌다"며 달에 충돌할 로켓 잔해가 장정-3C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지구근접 물체를 추적하는 미국 우주군 제18우주관제대도 중국의 로켓 잔해가 2015년에 궤도

를 이탈해 대기권에 진입했다고 중국 측 주장을 뒷받침했다가 나중에 입장을 바꿔 혼란을 줬다.

우주군 대변인은 최근 성명을 통해 "우주군은 창어5호-T1 로켓이 궤도이탈을 한 적이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지만 달에 충돌할 로켓을 어느 나라가 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그레이는 "이런 문제에 대해 좀 더 조심스러운 입장이 됐지만 (중국 로켓이 아닌) 다른 것일 수 있다는 어떠한 것도 보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하버드-스미스소니언 천체물리학센터의 조너선 맥도웰은 그레이의 견해를 지지하면서 "무엇이든 달에 또 다른 작은 충돌구를 만드는 결과는 달라질 것이 없다"고 했다.

달에는 대기가 없어 소행성이나 운석의 충돌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으며, 풍화작용이나 지각 활동이 없어서 한번 생긴 충돌구는 사라지지 않는다. 마맛자국처럼 달 전체를 덮고 있는 충돌구 중에는 크기가 최대 2500km에 달하는 것도 있다. /연합뉴스

AI·5G·6G 등 국가 전략 기술 육성 내년 정부 연구·개발 예산 집중 투자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자문회의

내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이 미래 과학 기술 인재 양성과 국가 필수전략 기술 육성 등에 초점을 맞춰 편성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8일 제37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 방향 및 기준(안)'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글로벌 기술 패권 시대에 대응해 10대 국가 필수전략 기술을 육성하는 데 내년 R&D 투자를 집중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인공지능(AI), 5G·6G, 첨단바이오, 반도체·디스플레이, 첨단제조·로봇, 이차전지, 수소, 양자, 우주·항공, 사이버보안 등의 기술을 10대 국가 필수전략 기술로 선정할 바 있다.

정부는 해당 기술별 특성에 맞는 투자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위한 투자 시스템을 마련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학문 분야별 지원을 체계화하고 청년·여성 연구자의 성장을 돕기 위한 연구환경을 조성한다.

내년 R&D 투자 계획에는 소재·부품·장비 핵심 품목 185개에 관한 기술 강화와 65개 미래선도품목을 중심으로 하는 원천기술 개발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백신·치료제 생산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신약·첨단 재생의료 등에 대한 범부처 전주기 투자도 이어가기로 했다.

D·N·A(데이터·네트워크·AI) 기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증강현실(AR)·확장현실(XR) 등 핵심기술개발 지원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저탄소 공정기술 개발 지원도 지속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위원회에서 '제4차 과학기술 기본계획(2018~2022)'에 따른 2021년도 추진실적과 기초연구사업 분야별 지원체계 전환, 그린뉴딜 유망 중소기업 확대 등 2022년도 시행계획도 확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이날 심의회의에서 '제3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2020~2024)'의 2022년도 시행계획안을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농림식품 R&D 예산 1조3080억원 중 스마트농업 고도화, 농생명바이오산업 육성, 고품질 농식품산업 육성, 기후변화·재난·질병 대응, 삶의 질 향상 등 5대 중점 분야에 57%(7452억원)을 투자한다.

기상청은 이날 운영위원회에 '제3차 기상업무 발전 기본계획'에 대한 2022년도 시행계획안을 보고했다. /연합뉴스

함께하는 100년 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NH가성비국민건강보험 2004 (무배당)

가성비를 갖춘 합리적 선택!

심장질환 + 뇌질환 2대 혈관질환! 든든하게 준비하기! 진단비와 수술비를 동시에!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안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운암백삼지점 062)529-5335~6	쌍촌지점 062)381-6551~2	유동지점 062)512-1984~5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운지점 062)528-2640~2
상무동지점 062)372-3741~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농성지점 062)361-4472~4	운암지점 062)527-3295~6	비틀지점 062)381-1971~2
용산지점 062)526-0222~3	화정지점 062)372-0421~3	동림지점 062)513-8521~3	유덕지점 062)373-3235~6	운천지점 062)371-2772~3
지평지점 062)381-8212~3	로컬푸드직매장 062)364-8400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하나로마트점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